

전두환, 1995년에도 '헬기사격 증언' 화내며 민감 반응

■ 새로 공개된 보안사 5·18문건 무늬 내용 담겼나

새로 공개된 5·18 관련 보안사 문건에는 1995년 피터스 목사가 검찰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사실을 들은 전두환이 매우 화를 냈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현재 헬기사격 여부 등을 놓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과거에도 헬기사격에 대해서 만큼은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문건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화염방사기를 대량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비롯한 육군 항공기를 기동타격대로 활용하려 했다는 내용, '편의대' 활동 사실, 5·18민주화운동 이후 군 정보당국이 5·18 관련 드라마·영화 제작에 대해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펼친 내용 등이 담겼다.

이날 공개된 문건 중 1980년 7월 15일 육군본부 교육발전처장인 장창호 준장이 작성해 작전처장에게 보고한 3급 기밀문건인 '광주 사태 분석'의 진압장비 실제 부분 분을 살펴보면, 사용 가능한 화염방사기 62대 중 30대(49%)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당시 31사단은 화염방사기 운용을 위한 지원대를 편성했으며, 3특전여단은 자체 개발한 보조장치를 연결해 사거리를 연장한 M-203(유탄 발사기)발사기를 광주에

첩보·선동 편의대 511명 활동 5·18 영화 제작 조직적 방해 항공기 기동타격대 활용 화학탄·헬기 동원 계획 확인

서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도 담겨 있다.

또 계엄군들에게 소총과 대검, 방독면 등을 개인장비로 보유하도록 했고, 화학탄과 헬기 등이 동원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 전시 투입에 맞먹는 무장 대응에 나선 것이다. 같은 문건에는 육군 항공기 운용계획도 들어 있었다. 간부들에게 항공기 운용에 대한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하루 최대 4시간 계획에 의한 임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긴급시에는 항공기를 기동타격대로 활용하도록 했다.

사복 차림으로 첩보·정보 수집·선동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한 비정규 군부대인 편의대 요원 511명의 활동을 보여주는 대목도 있다.

이와 함께 검찰수사를 1989년 3월 6일 제작된 '광주사태시 무장헬기 기동소사 내용 증언 동정 문건'에는 80년 광주민중항쟁 당시 무장헬기에 작전 명령이 하달돼 헬기 기동소사가 있었고, 이를 증명하는 양심선언이 있었다는 설이 광주교구 조비

오 신부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95년에 만들어진 '5·18 피고소인측 피 목사 검찰증언 관련 반향' 문건에선 전두환씨가 최근 피(터스) 목사가 헬기사격을 검찰에 증언하자 매우 진노한 상태에서 "군 장비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횡설수설 하고 있다"며 당시 항공감이었던 배모 장관(중장)을 찾아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다. 5·18 당시 광주에 선교사로 머물렀던 피터스 목사는 헬기사격을 목격한 증인 중 한명이다.

특히 검찰이 목사의 증언을 인정하는 수사를 할 경우엔 5·18 피해자, 검찰, 정치인 등 관련자를 모두 소집해 동일 기종의 헬기에 무장을 하고 실제 기총소사 시범 보임을으로써 기총소사가 얼마나 무섭고 피해가 큰지를 인식시켜 목사 스스로 작각을 시인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다고 쓰여 있다.

이 밖에도 5·18 행불자 인정자 가족회(회원 32명·1989년 7월 결성)를 무력화 또는 와해하기 위한 전략 등이 담긴 문건도 확인됐다.

1986년 5월 17일~18일 프르야구 경기 일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내용도 있었다. 1986년 5월 14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는 '광주권 안정' 차원에서 경기장 변경(광주-전주)과 시간 조정 등 조치가 취해진다고 적혀 있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5·18 보안사 문건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5선·당대표 출신...문 대통령 개혁 반발 검찰 '다잡기'

법무부 장관 추미에 의원 내정 갈등 국면 윤석열 전제 포석도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여권과 검찰의 '전면전' 국면에서 '추다르크'라는 별칭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5선 추미에 의원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는 '원포인트 개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번 인선이 검찰이 대통령 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로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 대한 견제카드로 작동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추 의원 발탁에 담긴 메시지는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최대 과제를 개혁 성향이 강한 법무장관 카드를 통해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최근의 청와대-검찰 갈등 논란의 배경에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크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정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개혁법안 처리가 불투

명한 상황에서, 자칫 이대로 검찰개혁이 좌초하는 것이냐는 위기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 및 여당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을 독심있게 밀고나갈 개혁적 인사로 추 의원을 선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의원 불패'라는 말처럼 현역 의원의 경우 정문회를 돌파하는데 강점이 있다는 점도 인선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청문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우려도 크기 때문이다.

원 포인트 개각 시기도 주목할 포인트다. 청-검 갈등 국면의 한복판에서 전격적으로 발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이 윤 총장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강한 성격의 추 의원을 새 장관으로 발표하면서 검찰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추 의원은 여성 최초의 지역구 5선 의원이자 판사 출신의 첫 여성 국회의

원이다. 판사로 재직하던 1995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였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발탁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지난 2016년부터 작년까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을 진두 지휘했고, 2017년 대선 승리를 통한 정권교체의 주역이기도 하다.

대구의 세탁소집 물재 팔로 태어나 경북여고를 졸업한 정통 TK(대구·경북) 출신이지만, 전북 정읍 출신 변호사와 결혼해 대구의 딸, 호남의 며느리라고 불리기도 한다. 강단 있는 성격으로 사법개혁 추진에 적극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변호사인 남편 서성환(64) 씨와 사이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대구(61) ▲경북여고 ▲한양대 법대 ▲사시 24회 ▲인천·전주지법, 광주교법 판사 ▲15·16·18·19·20대 의원 ▲새천년민주당 총재 비서실장 ▲노무현 전 대통령 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장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 국민통합위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대표.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법무 '원 포인트' 인선...총리 등 후속 개각은 늦어질 듯

시민단체 반대 '김진표 카드' 주춤 출마 장관들은 후임자 찾기 난항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추미에 의원을 법무장관에 내정하는 '원 포인트' 인선을 단행하면서 국무총리 등 후속 개각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일단 이낙연 총리의 후임 발표에는 조금 더 시간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선거법 개정 및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는 상황이 변수다. 여야가 강력한 대치 국면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리되기 전에 표결이 필요한 총리 후보를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 지난 녹지원 간담회에서 개각 계획에 대해 "패스트트랙"이 있는(법안들도) 입법이 될지 관심사여서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런 일에 변수를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기에 최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김 의원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지도 주목된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동·참여연대는 공동성명을 내고 "김 의원은 총리로 절대 임명해서는 안 되는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핵심 지지층인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반발을 그냥 넘어가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김진표 카드 재검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여권 일부에서지만 이 총리가 당분간 교체되지 않고 직을 유지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른 장관들의 경우 후임자 찾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권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차출론이 나오고 있다. 현직 의원인 유

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출마예상자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이 출마하기 위해서는 내년 1월 16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하며, 그러려면 적어도 그 이전에 후임자 발표가 이뤄져야 하지만 높은 검증 문턱 탓에 적절한 인사를 찾기가 어렵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후속 장관 인선은 공직사퇴한 근처까지 미뤄질 수 있으며 교체 폭도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개각 논의와 맞물려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대한 추측도 함께 흘러나오고 있다.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진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의 경우 조만간 교체될 가능성이 크며, 여기에 윤경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역시 총선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갈 수 있으리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 안에 청와대 내 조직개편이나 인적쇄신을 단행, 집권 3년차 공직 분위기를 다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예정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 (충흥동 665-29)

한일솔라에너지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